



증권 다이제스트
한화투자증권
‘기해를 잡아라’ 이벤트

한화투자증권은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생애 최초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2019년 ‘기해를 잡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신청고객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축하금 1만원과 펀드쿠폰 2만원을 지급 받는다. 100만원 이상 주식을 거래하고, 3월 29일까지 총 잔고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현금 2만원과 펀드쿠폰 3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8만원의 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신청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 당일부터 5년간 한화투자증권 모바일 앱 ‘스마트(Smart)M’을 통해 거래하는 국내주식(KOSPI, KOSDAQ, ETF 등) 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유관기관 제비용은 제외). /김민호 기자



유안타증권
와스카 지분 매매계약

유안타증권은 지난 30일 오후 부산항 신항 4부두 PSA현대부산신항만(이하 H PNT)에서 유안타-HPNT PEF가 HPNT의 재무적 투자자인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IMM인프라6호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인 와스카 유한회사의 지분 인수 거래를 마무리하는 매매계약 서명식 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명식 유안타증권 사장,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조재용 IMM인베스트먼트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손업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모의투자대회 시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사에서 제4회 2030 주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젊은 투자자들의 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2030 모의투자대회는 이번에 4회째 개최됐으며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5주간 진행됐다. 전국의 20~30대 약 15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 성황리에 대회가 종료됐다. 대회 1위는 110.77%의 수익율을 기록한 ‘신내림작두’가, 2위는 105.27%의 ‘크크덕스’, 3위는 74.89%의 수익율을 기록한 ‘어메이징’이 차지했다. /손업지 기자

권용원 “거래세 폐지 등 선진화방안 추진”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협회장 기자간담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세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세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출될 세계계편안에 증권거래세 완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건의안을 다듬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국회, 세계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 발언에 대해 “제세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등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도 방점을 찍었다.

현재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펀드의 손익통산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20%의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20%의 이익이 나면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은 0원이 된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법 아래에서는 20%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체계 선진화를 통해 공모

펀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권 회장의 생각이다.

권 회장은 “한국의 공모펀드 시장은 미국, 호주와 비교해 상당히 약하다”면서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모펀드에 과세체계가 바로 서야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개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공모펀드, 미국·호주보다 약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서야

운용사-연기금 동반성장 기반 마련 이달 KIND와 업무협약 맺을 것

이와 동시에 협회는 ‘자산운용산업 비전2030’ (가칭) 수립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월 발표될 비전 보고서에는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펀드 손익통산, 자기자본 확대, 펀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이 담길 계획이다.

권 회장은 “운용사가 연기금과 동반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2월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운용사와 공사가 함께 해외투자에 나서는 프로젝

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함께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해서 자신의 퇴직금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다”라면서 “근로자 노후대비를 위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보다 퇴직연금 선진화된 나라를 보면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디폴트 역시 차제에 깊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디지털혁신 고도화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향후 로보어드바이저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ID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은 임기동안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4개 부문 12개 과제가 담겨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다.

권 회장은 “현재 금융위원회, 협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회위원회, 협의담당자, 연구기관 등이 14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1분기 내 관련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2분기 내 입법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올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13.5만 가구... 분양대전 예고

공급물량 48%, 6.5만 가구 서울에 과열지구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설 연휴 이후 2~3월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전이 펼쳐진 전망이다.

31일 부동산114등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은 13만5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6만5000가구(48%)가 서울에 예정돼 있다. 지난해 9·13대책과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분양이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모양새다.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서울 내 신축 아파트라는 희소가치로 향후 매매가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변경된 청약제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민영 주택의 물량 75% 이상

(설 직후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	분양 시기
서대문구 홍제3동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1,116 -419	39~114	2월
송파구 거여동	거여2-1 롯데캐슬(가칭)	1,945(745)	59~108	2월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128 -118	미정	3월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752(276)	49~175	3월

* 분양계획은 업체 사정에 따라 분양시기, 공급규모 및 세대수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각 업체, 피알퍼

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도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조정 등의 정책 반영 예고에도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12월 은평구 응암1구역에 선보인 재개발 단지 ‘힐스테이트 녹번역’은 1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며, 59대1의 경쟁률로 전세대 1순위 청약 마감에 완료했다.

같은 달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도 평균 91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최고 경쟁률은 238대 1이었다.

올 초에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이어진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오는 2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공급한다. 흥제3주택 재개발구역(홍제3동 270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 동, 전

용 39~114㎡, 1116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41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롯데건설은 내달 서울 송파구 거여2-1주택재개발 구역에서 ‘거여2-1롯데캐슬(가칭)’을 분양한다.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7개 동, 전용면적 59~108㎡로 지어진다. 총 1945가구 중 745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서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를 오는 3월 선보인다.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지구에서 선보이며 총 128가구 중 11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GS건설도 같은 달 서울시 서초구 방배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배그랑자이’를 공급한다.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49~175㎡로 구성된다. 총 752가구 중 27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파주 운정 3지구 내달 분양 돌입

올 아파트 5곳서 4648가구 공급

사업추진 11년 만에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가 내달부터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운정3지구는 운정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이자 GTX A노선운정역(예정)이 위치한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곳이다. 올해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의 공급규모는 아파트 5곳, 4648가구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710가구)’ ▲우미건설 (846가구) ▲중흥건설(1262가구) ▲대방건설(820가구) ▲대림산업(1010가구) 등

이다. 715만㎡ 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 3만 5706가구가 들어선다. 앞서 공급된 운정 1·2지구(4만4464가구)와 합치면 일산신도시(7만4735가구)보다 큰 도시로 조성된다.

운정3지구에는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GTX A노선 운정역(2023년 예정)이 신설되고, 청룡두천 수변공원과 체육공원(16만㎡)이 어우러진 총연장 4.5km의 대규모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또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한 문화체험 거리 공간도 예정돼 있다.

(파주 운정 3지구 위치도)



이에 운정3지구 내 택지 입찰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1월 파주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3블록 1개 필지 공급 입

찰이 392대 1, 지난해 5월 공급된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4블록도 14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매각된 바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운정3지구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자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GTX A노선 운정역이 위치해 있는 등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운정3지구에서는 오는 2월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다. 우선 대우건설은 파주 운정3지구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59㎡·84㎡, 710가구를 분양한다. GTX A 노선 운정역(2023년 예정)이 차로 5분거리다. /이규성 기자 peace@